

GE-한전 손잡고 나주 에너지밸리 집중 투자

전력설비 국산화·중기 지원 등 세계 최고 전력설비 클러스터 GE 빛가람 사무소 개소

글로벌기업 GE(General Electric Company)가 한전과 손잡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에 본격적인 활동을 걸었다. GE는 한전과 25일 한전 본사와 나주혁신도시에서 각각 'GE-한전 에너지밸리 투자 추진단 발족 행사'와 'GE 빛가람 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 GE 러셀 스톱스(Russell Stokes) 에너지커넥션 사장과 장병안 국회의원, 윤장현 광주시장, 전라남도·나주시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했다.

GE와 한전 양사는 지난 3월 13일 고압 직류송전선(HVDC) 인프라 구축 협력 MOU 체결 직후 투자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투자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향후 전력 기자재 국산화, 중기 인력 지원, 신기술 개발 및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등 국내 최초로 차세대 전력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해 빛가람 에너지



25일 'GE-한전 빛가람에너지밸리 사무소 공동 현판식'이 장병안 국회의원(왼쪽 3번째부터), 조환익 한전 사장, 러셀 스톱스 GE 에너지커넥션 사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전력 제공>

밸리를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설비 통합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이날 한전 본사 인근 나주혁신도시에서 GE의 에너지밸리 투자업무에 수행할 사무소를 개소함에 따라 에너지밸리 통합 클러스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소에서는 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협업 및 세부 담당자가 상주하며 한전과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GE-한전 에너지

밸리 투자 추진단 발족과 GE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본격적 투자가 시작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산업 인터넷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GE와의 협력을 국내 산업발전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GE 러셀 에너지커넥션 사장은 "디지털 기반 HVDC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효율적 송배전 및 전력거래 수요에 따라 그 중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전과의 MOU를 바탕으로 GE 나주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양사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글로벌 기업인 GE의 투자가 구체화됨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에너지밸리로 관련 기업이 유입되어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찾아오는 농촌마을' 만들기 aT, 나주 농촌 환경 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최근 나주지역 농촌마을 2곳을 찾아 야외 화단을 가꾸고 잡초를 정리하는 등 '깨끗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CAC, Clean Agriculture Campaign)을 했다. CAC란 국민들의 '깨끗한 농촌'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업기관 및 주민협의체가 함께하는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캠페인이다. 3대 핵심 캠페인 대상(농촌·농산물·농업인)별 맞춤형 실천과제를 실행함으로써 농업·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T는 농업·농촌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기관으로서, 4월부터 CAC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나주 세지 화답마을, 명하 쪽빛마을의 화단을 가꾸고 잡초를 정리하는 등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행사를 주관한 aT 고통호 경영지원부장은 "이번 CAC 캠페인은 농촌의 가치를 높여서 '신뢰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40명은 최근 나주의 한 배 농가를 방문해 '농어촌 영농도우미' 활동을 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일손 부족 배 농장서 '구슬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최근 나주시 공산면에 위치한 배 농가를 방문해 농어촌 영농도우미를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공사 임직원 40명이 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배나무 영양제 주사, 배 꽃따기 등을 하며 일손을 도왔다. 영농도우미 활동으로 수혜 받은 농업인은 "일손이 모자라서 시들하던 차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저기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탄탄한 K-스토리 日 제작사들 눈독

콘텐츠진흥원, 도쿄서 홍보

'에어리브' 등 총 11개의 작품이 일본 관계자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2014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피 말리는 연애'에 현지 제작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해당 작품이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 NHK와 일본TV(NTV), 후지TV, TV아사히 등 주요 방송사와 '태양의 후예'의 일본본권을 구매한 NBC 유니버설 채널, 일본 대표 미디어기업 도에이 애니메이션,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 요시모토 흥업 등 세계적인 규모의 콘텐츠기업에서 100여 명의 이상의 관계자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전 KDN-나주 다시면 자매결연

한전 KDN 인사노무처와 나주시 다시면은 최근 북악 2리 마을회관에서 1차·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매결연은 일손이 부족한 관내 보리 최대 주산지인 북악 2리 마을에 일손 돕기·농산물 직거래·마을 가꾸기 등을 통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한전KDN 인사노무처는 안마의자를 마을회관에 기증하고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1차·1촌 협력관계에

전파연구원, 무선이동체 기술 워크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25일 전파연구원 빛가람전파회에서 한국전파과학회와 공동으로 '무선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도의 특성과 산업인 무선이동체에 적용되는 전파기술 및 정책을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무선이동체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인 전파기술 및 정책을 주제로 국내 전문가 10명의 발표가 이어졌다. 무선이동체는 원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드론(공중), 무인자동차(육상), 무인해양선(해양)으로 운송·농수산·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래형 핵심기다. 태백드론과 무인제초기, 갑

덕충동 신성오피스텔 분양공고

구분	현황	시공예	시행사	시행사명	분양대상
상호	상업층	주거층	시공공사	시행사명	분양대상
상호	1000평	1000평	대한건설(주)	대한건설(주)	대한건설(주)

분양대상인사내역

구분	현황	시공예	시행사	시행사명	분양대상
상호	1000평	1000평	대한건설(주)	대한건설(주)	대한건설(주)

분양대상인사내역

구분	현황	시공예	시행사	시행사명	분양대상
상호	1000평	1000평	대한건설(주)	대한건설(주)	대한건설(주)